



통일의 인문학! 도서관계의 남북교류를 희망한다!



송승섭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센터장
한국도서관협회 남북도서관협력위원회 위원장
libsong6703@daum.net

2006년 봄, 남북관계가 무르익을 무렵 필자는 북한에 다녀왔다. 비료를 전달하기 위한 지원 단장 자격이었다. 울산에서 출발한 우리 배는 부산 앞바다와 서해의 격랑을 넘어 마침내 서해갑문을 통과했고 남포항에 이르렀다. 무려 3박 4일이 걸리는 힘든 여정이었다. 함께 간 3명의 파트너와 술도 마시고 많은 이야기도 주고받았지만 긴 시간이어서 조용히 독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그 때 필자가 읽은 책은 유홍준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였는데, 이 책이 나중에 북한과 소위 ‘협상’에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힘겹게 도착했지만 체류할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다. 우선해야 할 일은 물품의 하역관리이고 인수인계서 교환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물품의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저런 실랑이가 잦곤 했다. 그 외에 북측에서 제공하는 환영 만찬과 그 답례로 이루어지는 우리 측의 만찬 행사로 대략 3, 4일 이내에서 전체 일정이 끝나게 된다.

도착 첫날, 북측의 만찬은 대동강이 한 눈에 보이는 남포구락부 2층 식당에서 진행됐다. 북측 환영사에 맞추어 필자는 남포의 아름다운 풍광을 치켜세우며 고려 시대의 문신 정지상의 ‘송인(送人)’을 읊었다. 순간 분위기가 넘어오는 듯 했다. 그들은 남포와 대동강을 배경으로 한 이 한시를 잘 몰랐으므로.

雨歇長堤草色多 비개인 긴 둑에 풀빛이 짙은데
送君南浦動悲歌 님 보내는 남포에 슬픈 노래 흐르는구나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나 마르리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여지네

이와 비슷한 일은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났다. 평양 관광을 하는 중에 대동강 줄기를 따라 주체사상탑을 돌아 인민대학습당이 있는 김일성광장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평양성 정문에 해당하는

“그러면 우리의 인문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도서관은? 인문학은 앞서도 말했지만 개인적 성찰에 그치지 않는다. 실천과 공생의 학문이다. 또한 도서관은 이 실천과 공생의 밑거름이자 도구이다.”

대동문이 있었다. 거기서 필자는 대동문의 현판이 원래 3개인데 양사언의 초서 현판이 가장 유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북측 단장은 반색했다. 물론 전남 읍은 한시와 이 역사적 사실은 고등학교 한문책과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이었지만 유홍준의 책을 통해 바로 얼마 전에 각인된 것이었다. 이후 오찬에는 평양 중심부의 민족식당에서 북한이 자랑하는 단고기와 냉면을 먹으며 노래도 부르고 담소를 나누기도 했는데, 필자는 북한 자료를 다룬 경험이 있다 보니 그들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었다. 결국 책 한 권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전 경험이 가져다 준 문화적 공감 덕분에 우리는 아무런 마찰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돈독한 우애를 다지며 서해감문을 덤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

이렇듯 추억으로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절도 있었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반목과 대립의 구도 속에서 유보된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들은 남한에 비해 물질 경제적 토대가 빈약하다보니 사상적 우위와 정신과학을 강조한다. 그래서 아마도 필자가 그들의 지역 문화에 대해 보인 관심과 호의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교적 수사로 상호 교환했던 문화적 감응과는 달리 북한의 문화 실상은 사뭇 다르다. 북한은 출판물에 대해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 건설의 과업 실천으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문학은 물론 모든 문화·예술 활동의 결과물까지도 개인의 창의성보다는 김일성주의를 강화하는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낯설음을 통해 우리는 단지 인문학뿐만 아니라

60년 이상 지속된 상호 제도와 관습, 그리고 서로 다른 인식 속에서 나타난 문화적 이질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통일인문학’에 대해 우리 도서관계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문학은 끊임 없는 개인적 탐구와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사회로 나아가 결국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 존재하게 된다. 그 관계 속에는 전쟁의 아픔, 분단과 이산의 트라우마를 함께 겪고 있는 또 다른 한민족이 있다. 통일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우리 민족의 과거 상처와 현재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통, 치유, 통합의 어젠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얼마 전 한 대학에 통일인문학과가 개설되었다니 다행이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그러면 우리의 인문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도서관은? 인문학은 앞서도 말했지만 개인적 성찰에 그치지 않는다. 실천과 공생의 학문이다. 또한 도서관은 이 실천과 공생의 밑거름이자 도구이다. 그런 까닭에 이제 우리 남북한의 도서관에서 통일인문학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거시적 담론에 그치지 말고 남북한의 실생활 문화부터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서로에 대한 진실한 이해를 통해 분단 극복의 인문학적 성찰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도서관은 교류해야 한다. 남과 북의 도서관계가 교류를 통해 통일인문학의 뿌리를 키우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시켜야 한다. 어쩌면 여기에 그 과실을 먹고 자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